



학회소식과 동정

...학회소식



한국헌법학회(회장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

한국헌법학회(회장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는 2014년 8월 29일(금),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세미나실에서 『감사원 감사 제도에 대한 고찰』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제7회 정기 학술 집중포럼(ROUND TABLE)를 개최한다.

발제는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토론에는 최희경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정상우 교수(인하대 사회교육과),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전원)가 참여한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송광섭 교수) ○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송광섭 교수)는 오는 2014년 8월 20일(수) ~ 8월 21일(목) 중앙대학교 법학관 (303동) 301호, 302호에서 『글로벌 안전사회와 형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중국법학회 형법학 연구회와 공동으로 제12회 중·한형법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조직범죄 발생 현황 및 형사법적 대처방안: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강패사회 성질의 조직범죄의 구성과 징벌에 대한 간단한 논술: 주경평 (하북성인민검찰원부검찰장)

토론에는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 해외은닉재산의 국내환수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 이경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중국에서 불법자산 추심에 대한 형법대책: 라경동 (최고인민검찰원형

사신소검찰청부청장)

토론에는 황태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 마약류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이인영 (홍익대학교 교수)
- 중국 마약범죄 형사입법에 대한 반성: 리자평 (남창대학법학원원장)

토론에는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 전쟁범죄의 개념적 한계와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오경식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

- 중국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연구논평 : 팽봉런 (안휘사범대학법학원원장)

토론에는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참여하였다.

- 보이스포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방안: 구길모 (충남대학교 교수)

· 전기통신 사기범죄의 징벌 및 방비한 국제협력에 대하여: 황소량 (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 중국형법연구소부소장)

토론에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 환경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허일태 (동아대학교 교수)
- 중국환경범죄의 형사법적 대처: 장천홍 (산서대학법학원원장)

토론에는 조병선 (청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 테러의 효과적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김범식 (서남대학교 교수)

- 테러활동 범죄의 징벌과 방법: 왕문화 (북경외국어대학법학원부원장)

토론에는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참여하였다.

- 공판절차상 범죄피해자 참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김혜정 (영남대학교 교수)

· 피해자가 공소절차에 참여하는데 관한 연구: 사립매 (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형사소송법학연구소부소장)

토론에는 윤상민 (원광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 이진국 (아주대학교 교수)
- 중국 건설중의 테러혐의 자산동결제도: 황 풍 (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국제형법연구소소장)

토론에는 도중진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 전범재판의 이념과 시사점: 김성천 (중앙대학교 교수)
- 전범심판의 이념과 계시: 장지휘 (최고인민검찰원사법개혁판공실주임)

토론에는 한상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취임식 거행

성낙인 서울대학교 신입 총장은 지난 8월 5일 ‘서울대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총장은 이날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인 전환 이후 서울대의 좌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국립 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새로운 대학을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2011년 국립 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는 이어 서울대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계 대학 리더로서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지식창조 선도자로 도약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선(善)한 인재 양성 △대국민 지식 나눔 사업 △분권형 운영체계에 입각한 책임행정 등의 정책 방향을 내놨다.

성 총장은 특히 “글로벌 정체성과 브랜드를 제정립해 교육 및 연구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서울대 글로벌 대사관(SNU Embassy)을 구축해 세계화의 지원 기지로 활용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입시 및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화두로 제시했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소외계층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입시와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